■ 나로호 발사 … 고흥군 남열리 주민·관광객 표정

25일 오후 5시 한국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우주를 향해 성공적으로 날아오르자 인근 남열해수욕장에서 지켜보던 관람객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고 있다. 그러나 나로호 탑재 위성이 정상궤도 진입에 실패해 아쉬움을 남겼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高興의 꿈, 8전9기 해야죠"

하늘로 치솟자 "만세" 함성 … 궤도진입 실패 아쉬움

"발사는 성공했지만 궤도진입에는 실패한 절반의 성공입니다. 나로호에는 지역민과 국민의 꿈이 서린 만큼 포기하지 말고 8전9기 해야죠."

25일 오후 5시 고흥군 영남면 남열해수욕장. 백사장에서 11시 방향, 직선거리로 16㎞ 떨어진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에서 굉음과 함께 대한민국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순식간에 하늘로 치솟았다. 외나로도 상공에는 뿌연 연기가 흩날렸다. 붉은 불기둥이 돼 하늘로 치솟는 나로호의 모습이 육안으로 관측됐다. 해수욕장에 운집한 2만여명의 군민과 관광객 틈에서 '와'하는 탄성이 이어졌다.

특설무대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발사 30초 경과, 음속 돌파' '발사 1분20초 경과, 대기권 돌파' '발사 2분 20초 경과, 나로호 엔진 정상' 등 발사 성공을 알리는 자막이 잇따라 지나갔다. 여기저기서 '고흥 만세' '대한민국 만세' '나로호 만세' 등의 함성이 쉴새없이 이어졌다.

백사장 한켠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발사성공을 축하하는 경쾌한 음악과 사회자의 멘트가 울려퍼졌다. 제주도 상공으로 향하던 나로호는 삽시간에 시야에서 사라졌다.

기념비적인 순간을 함께하려는 관광객들은 연방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1㎞에 달하는 백사장에는 관광객들이 일제히 태극기를 흔들어 장관을 이뤘다. 정황배(37·고흥군 포두면)씨는 "고흥의 꿈이 실현됐다. 대한민국의 꿈이 이뤄졌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발사후 1시간이 경과한 뒤 나로호가 정상궤도 진입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백사장은 일순간 고요에 잠겼다. 서울에서 온 김성연(45)씨는 "성공확률이 낮다고 해서 기대는 하지 않고 왔지만, 1시간이 지난 뒤 부분실패 소식을 들어 실망감이 크다"면서도 "8번 실패했어도 9번째 성공하면 되지 않느냐"고 여전히 기대감을 나타냈다.

고흥군에 따르면 이날 고흥군 영남면 해돋이 해수욕장과 팔영산 등 관내 6개 주요 지점을 찾아 나로호 발사 장면을 지켜본 군민과 관광객은 3만여명에 이른다. 군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광객들의 원할한 관측을 위해 주요 관측지점 6곳을 선정해, 인원이 분산되도록 유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나로호 발사 성공을 발판삼아 고흥만 간척지 약 330만㎡ 부지에 1조3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우주, 항공, 문화관광, 교육 등의 시설이 집약된 우주항공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을 세웠던 고흥군은 그 일정을 다시 잠시 미뤄야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나로호가 번번이 발사의 문턱에서 수차례 연기되거나 중지돼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다. 발사일만 되면 내심 불안했다"면서도 "일단 군정 목표가 '우주항공수도 고흥건설'인 만큼 오늘 발사를 절반의 성공으로 보고 관련 사업들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김형호기자 khh@

'청산가리 막걸리' 용의자 검거

순천지청, 사망자의 20대 딸 … "인터넷서 구입"

순천의 한 시골마을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검찰에 붙잡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5일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어 이 막걸리를 나눠 마신 자신의 어머니와 동네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여·26)씨를 긴급체포했다.

용의자 A씨는 숨진 최모(여·59)씨의 딸로 피해자들과 같은 마을에 살고 있다. 검찰은 순천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조사를 하던 중 A씨의 행적에 수상한 점이 있다고 보고 집중 추궁한 끝에 범행 일부를 자백받았다.

A씨는 검찰에서 "청산가리는 인터넷을 통해, 막걸리는 순천 남부시장에서 직접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1주일 전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입건된 이웃 주민 B씨 사건을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를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했던 점에 주목, A씨의 행적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8일 'B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해 경찰은 B씨를 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가 B씨를 무고했다고 보고 이날 석방했다.

한편, 지난달 6일 오전 9시10분께 순천시 황전면 모 희망근로현장에서 최씨 등 할머니 4명이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셔 2명이 숨지고 2명은 병원 입원 치료 후 퇴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 막걸리에 청산가리 왜 넣었나

"채팅男들과 어울린다" 꾸중에 울컥?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A(여·26)씨가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은 이유는 무엇일까?

검찰은 우선 A씨가 숨진 어머니 최모(여·59)씨로부터 인터넷 채팅 문제로 잦은 꾸지람을 들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A씨는 고교 졸업 후 수년 간 별다른 직업 없이 집에서 지내오던 중 인터넷 채팅에 손을 대게 됐다. A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남자들과 자주 어울려 다녔고, 이를 본 최씨는 A씨를 자주 나무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점과 최씨가 막걸리를 평소 자주 즐겨 마신 점에 주목, 범인이 최씨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일 것으로 보고 A씨를 용의선상에 올려놨다.

하지만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받은 뒤 용의선상에서 제외됐다. 검사결과, 진실 반응이 나온 것이다.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조사를 하던 검찰은 A씨의 행적에 수상한 점이 있다고 판단, 추궁한 끝에 A씨로부터 일부 범행을 자백받았다. A씨는 검찰에서 "인터넷 채팅을 하는데 대해 어머니가 자주 나무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아직 자백만 확보한 상황이어서 A씨가 실제 범행을 했는지 등은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나원참 〈7892〉 김종두

타인 명의 렌터카 몰며 절도

광주북부경찰은 25일 길거리에서 주운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려 몰고 다니며 빈집털이를 한 양모(27)씨 등 2명에 대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양씨 등은 지난달 20일 여수에서 주운 A씨의 운전면허증으로 순천의 한 렌터카 회사에서 차를 빌린 뒤 광주·전남지역을 돌며 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검찰 중간간부 등 340명 인사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에 담양출신 양부남씨

법무부는 25일 오세인(사법연수원 18기) 대검 공안기획관을 서울중앙지검 2차장, 김주현(연수원 18기) 법무부 대변인을 3차장 검사로 발령하는 등 검찰 중간간부 309명과 평검사 31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31일자로 단행했다. 〈명단 16면〉

대검 수사기획관에는 이창재(19기) 중앙지검 형사1부장, 공안기획관에는 봉욱(19기) 여주지청장, 범죄정보기획관에는 우병우(19기) 대검 중수1과장을 각각 전보발령하고, 법무부 대변인에는 김강욱(19기)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을 임명했다.

광주·전남 출신 중에는 문무일 수원지검 2차장이 인천지검 1차장, 양부남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송삼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가 수원지검 특수부장으로 각각 발령됐다.

또 여성인 조희진 서울고검 검사가 처음으로 수도권 검찰청 차장검사(고양지청)로 배치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법무부·대검·일선지검의 중간 핵심보직에 17~19기가 전진 배치됐고, 20기가 지방 지청장에 다수 발령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매형 명의 도용 예금 5억 빼돌려

광주서부경찰은 25일 매형의 명의를 도용해 예금 수억 원을 빼돌린 최모(42)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께 광주시 광산구의 한 우체국에서 매형의 예금계좌에서 4억여 원을 찾고 1억5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 4월 인터넷 모 사이트를 통해 현금 40만원을 주고 매형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광주 서구 모 우체국에서 돈을 찾으려다 거래 내용을 수상하게 여긴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경찰관들 마을 주민 송아지 찾아줘

쌍나팔

○…시골 경찰관들이 마을 주민의 소중한 송아지를 찾아줘 훈훈한 화제.

○…25일 진도경찰에 따르면 진도읍 박모(69)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께 자신의 축사에 있던 생후 5일 된 송아지 한 마리가 사라졌다고 신고.

○…경찰은 박씨의 집 주변 창고와 마을 진입로 등에 설치된 방범용 CCTV를 판독해 외부인 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한 뒤 송아지가 스스로 뛰쳐나간 것으로 판단, 인근 야산을 샅샅이 뒤져 7시간30분 만에 송아지를 발견해 주인에게 무사히 인도.

○…박씨는 "경찰관들이 자식처럼 소중한 송아지를 찾아줘 매우 고맙다"며 거듭 감사.

/진도=박현영기자 hypark@